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뮤즈컴(MUSCOM) 공모사업 최종심사 합격자 공고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뮤즈컴(MUSCOM) 공모사업 선발과 관련하여 진행된 최종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1. 최종심사 합격자

- 뮤지션(뮤즈컴 레지던시)

접수번호	성명	콘텐츠 기획명
R-5	오○렌	디지털 싱글 앨범 제작
R-13	황○훈	네○키○소○ 미니앨범 제작의 건
R-15	조○진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R-22	보○	보○의 '날좀보○'
R-40	정○원	명하씨

- 기획자(뮤즈컴 스페이스)

접수번호	성명	콘텐츠 기획명
S-6	네○키○브○스	Message From Hard-bop
S-12	최○민	배○한 재즈 오케스트라 <Jazz on Cinema>

※ 최종심사 합격자의 경우 개별 연락(전화 또는 SMS 문자) 실시 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 전달 예정

2. 심의개요

- 심의기준

심의기준	세부내용	배정
창작성	독창성, 참신성 등	40
연계성	지역 음악 자원(사람, 공간 등)과 연계 정도	30
확장성	콘텐츠의 지속 및 향후 발전 가능성	30

- 심의위원

연번	이름	소속
1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현 한국대중음악상, MAMA 선정위원
2	이대화	음악 저널리스트, 현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네이버 온스테이지 선정위원

3. 심의 총평

뮤지션(뮤즈컴 레지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2팀의 뮤지션이 최종심사를 통해 만나볼 수 있었음. 심의 기준에 따라 비다면 온라인 심사를 진행하였음. 최종 다섯을 선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뮤지션들이 많이 지원했으며, 앞으로의 사업과 그로 인해 탄생할 음악들이 기대됨. □ 문화도시부평에 걸맞게 인천지역 뮤지션들이 비중 있게 참여해 인상적이었음. 전자음악, 알앤비 같은 젊은 층에서 인기 높은 장르부터, 국악,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가한 것도 인상적이었음. □ 이미 음악성과 인지도가 궤도에 오른 뮤지션들도 지원해 코로나로 인한 음악계 침체가 더욱 와닿았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음. □ 지역에서 좋은 작품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뮤지션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상적으로 만나게 하는 플랫폼이 부족하다고 느낌. □ 좋은 작품을 만드는 뮤지션의 음악을 알리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중요함.

기획자(뮤즈컴 스페이스)

- 기획자에 대한 심의는 관내 4개소(락캠프, 버팀라인, 창고재즈펍, 슬로스)에서의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 음악 공간에 대한 해석과 창의적인 계획안을 중점으로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음. 다만, 대다수의 계획안이 기존에 해오던 공연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이 다수이며, 새로운 기획과 연출이 부족함을 느낌.
- 과감한 도전과 시도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 **최초 4개 기획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지원된 기획 중 상당수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두 기획을 선정하였음.**
- 단순한 음악 공연 이상으로 타 장르와의 퓨전, 대중성 안배 등이 고려된 기획들이 많았던 것은 인상적이었음.

4. 기타 사항

- 오리엔테이션 진행
 - 일시 : 2021.09.10.(금) 19:00 ~ 예정
 - 장소 :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 다목적홀
 - 내용 : 콘텐츠 공유 및 향후 계획 안내
-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 **2021년 9월 9일(목) 18시까지** 재단 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032-500-2045)